



“양국 관계 떠나 日 관광시장 지속 공략”

일본 수출규제 조치 속 관광업계도 대응책 찾기 분주
도·관광공사 등 어제 전략회의서 현장 목소리 수렴
업계 “마케팅 중단 안돼”… ‘직항노선 유지’도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간의 관계 악화에 불구하고 일본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및 일본관광객 유치 주요업종 대표들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정부에서 수출규제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일본관광객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제주와 일본 직항 운항 항공사인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을 비롯해 일본관광객 유치 여행사, 면세점, 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사 등 관광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일본지역 마케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과 제주-일본 직항노선 운항 유지였다. 특히 일본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집약됐다.

김아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사는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본 마케팅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민관이 지혜를 모아 도쿄 등 직항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이사는 “제주와 일본 주요 도시에 개설된 직항노선이 한때 급감했던 일본시장 회복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며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범철 세일여행사 제주지점장도 “오는 동절기 직항 노선 유지를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여행업계에서도 모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항공편과 관련 김봉호 대한항공 팀장은 “자사 제주노선은 70~80%가 일본발 수요이며 예약률을 보면

8월, 9월은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윤남호 롯데면세점 부점장은 “크루즈를 이용한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영돈 제주도 관광과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직항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선 중단과 감편 시에는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이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관광시장에 대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관광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및 일본 관광홍보사무소를 중심으로 9일부터 테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윤기자

제주감귤 1세대, 그들의 기억 남긴다

‘기억 수집’ 나선 서귀포시
고령 농업인 대상 구술조사
수집자료 박물관 전시 예정

“제주 감귤산업 1세대 농업인의 생생한 기억을 수집합니다.”

서귀포시 관광관리소는 1950~60년대 감귤산업 태동기에 활약한 1세대 감귤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감귤의 발전상을 주제로 기억 수집을 위한 현지 구술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이가 90대 안팎으로 고령화된 감귤 1세대 농업인들이 감귤농업 현장에서 담을했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 감귤박물관 전시를 통해 제주감귤의 우수성과 가치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취지다.

8월 한 달간 진행될 구술조사는 서귀포시 중심권(동흥·서흥동), 동부권(효돈·남원 일대), 서부권(도순·중문 일대)으로 구분해 지역주민 15명, 학계와 농업기관·단체 관계자 6명 안팎을 선정해 진행될 계획이다. 감귤농업에 뛰어든 계기에서부터 역경 극복 사례, 대학나무 이야기, 감귤 관련 에피소드 등을 두루 수집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감귤 농사 교본, 영농일지, 사진 등 감귤 관련 각종 자료도 발굴·수집해나갈 계획이다.

관광관리소 관계자는 “적박한 환경을 일궈 황금빛 과원으로 탄생시킨 감귤 1세대 농업인들의 노고와 감귤의 우수성,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편의점 옆 또 편의점’ 법으로 막나

오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같은 계열 업체도 출점 금지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편의점이나 계열회사의 업체가 근접 출점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8일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들,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 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승자 없는 게임” 文 대통령, 日 조치 철회 재촉구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

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제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자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첫 회의인데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을 대체하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국토부, 사업 대상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을 9일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광고 제2019-138호

2019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센터 ‘2019 제주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9 제주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주도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누구나(개인/팀, 학생, 기업 등)
- 3년 이내 해양수산 연관 기업 창업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공모주제

- 해양수산 연관 창의 기술 및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해양바이오, 수산식품, 양식, 어구·어업, CT 융합 기술, 콘텐츠, 마케팅, 게임, 문화, 캐릭터 등)

□ 수상규모

구 분	규 모	시 상 내 용
대 상	1점	500만원 상당 상품 / 상장
우수상	2점	300만원 상당 상품 / 상장
장려상	2점	100만원 상당 상품 / 상장
계		총 5점 / 총 상품 1,300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E-mail 접수 (susan2019@jeulup.or.kr)
-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1개의 첨부파일(hwp, pdf, jpg)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
- 서명이 필요한 참가신청서, 참가확약서는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파일로 전환하여야 함
- 이메일 제목은 ‘신청자명_생년월일로 작성 (예: 홍길동_170324)'
- ※ 팀 또는 기업인 경우 ‘팀명(기업명)’만 기재
- ※ 이메일 접수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재제출(추가, 수정 등) 시 이전 제출자료는 삭제하고 최종 접수된 자료로 서류검토 진행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 ~ 8월 28일
- 방문접수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106호 식품사업팀

□ 문 의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064-720-2914 ○중곡 연구원

JTP 제주테크노파크
JEJU TECHNOPARK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악인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8월 18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 선착순 40명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 효령사-선돌계곡-한라산둘레길-백록계곡-효령사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선악부 기인
1999년 8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시파방(8,031m)등정
2001년 4월 22일 네발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발 히말라야 만다푸르(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권22 44일간 세계최단기복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를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를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려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측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에서 7,700m 지점에서 "산악인 오희준"을 세상에 알린다
2008년 9월 30일 체육부장관 영호장수훈(체육부장관 영호장수훈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실패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터크의 신차 전세렌터카로 살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교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장비 보험 안전성 S정비업체 자금보증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국세청도 인정받은 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